

	베트남(하노이) 해외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정 걸 기 소 장
		일 시	2024. 6.

CEPA Insight

- 베트남, 소비판매 호조 지속...5월까지 1,041억달러 전년동기비 8.7% ↑
- 베트남, 5월 소비자물가지수 4.44%...정부 위기관리 '시험대'
- 베트남, 권력서열 2위 새 국가주석에 또 램(To Lam) 대장 선출

■ 베트남, 소비판매 호조 지속...5월까지 1,041억달러 전년동기비 8.7% ↑

- 베트남의 소매판매가 지속적인 증가세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. 31일 통계총국(GSO)에 따르면, 올들어 5월까지 상품소매·서비스 매출은 2580조동(1013억5633만달러)으로 전년동기대비 8.7% 증가했다.
- 특히 5월 매출은 519조8000억동(204억2055만달러)으로 전년동기대비 9.5% 증가해 1~4월 평균치를 웃돌았다.
- 5월 한달간 상품별 매출 증가율은 식품 및 식료품이 9.9%로 가장 높았고, 뒤이어 의류 9.3%, 가정용품 9% 등의 순을 기록했다. 서비스 매출 증가율은 숙박 및 케이터링이 17%, 관광업이 34.3%를 기록했다.
- 올들어 5월까지 상품소매 매출은 2000조동(785억7080만달러)으로 전년 동기대비 7.4% 늘며 전체의 77.5%를 차지했다.
- 항목별 매출 증가율은 문화·교육용품 15.5%, 생활가전 13.4%, 식품 및 식료품 10.5%, 의류 10.3%, 차량(자동차 제외) 1.3% 등을 기록했다. 숙박 및 케이터링 서비스 매출은 296조3000억동(116억4026만달러)으로 15.1% 증가했다.

해외시장 및 경제동향(6월)

- 지역별 상품소매·서비스 매출 증가율은 꽝닌성(Quang Ninh)이 10.1%로 가장 높았고 하이퐁시(Hai Phong) 9.5%, 켄터시(Can Tho) 8.4%, 다낭시(Da Nang) 8.2%, 호치민시 6.8%, 하노이시 6.7% 등을 기록했다.
- 관광산업 회복세에 힘입어 올들어 5월까지 관광 매출이 24조2000억동(9억5070만달러)으로 전년동기대비 45.1% 급증했다.
- 지역별로는 다낭시 관광 매출 증가율이 52%로 가장 높았으며, 뒤이어 호치민시 46%, 하노이시 44.6%, 꽝닌성 18% 등을 기록했다.

관련기사 링크: <https://www.insidevina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7650>

■ 베트남, 5월 소비자물가지수 4.44%...정부 위기관리 '시험대'

- 올들어 베트남의 물가상승률(인플레이션)이 정부 통제목표(4.5%)까지 오르면서 향후 물가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.
- 30일 통계총국(GSO)에 따르면, 5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전월대비 0.05%, 전년동기대비 4.44% 상승했다. 작년말 아프리카돼지열병(AFC) 발병으로 돼지고기 공급이 줄면서 가격상승으로 이어졌고, 전기요금이 인상된 가운데 이례적인 폭염에 전력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 물가상승의 주요원인으로 꼽혔다.
- 올들어 시중 자금투입에 팔을 걷어 붙인 정부가 신용(대출) 장려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물가가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하며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.
- 중앙은행(SBV)은 올해 신용성장률(대출증가율) 목표를 15%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대출에 나설 것을 각 상업은행에 독려하고 있다.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대출잔액은 전년말대비 1.95% 증가에 그쳤다.

해외시장 및 경제동향(6월)

- 이에대해 통계총국은 "5월 산업생산과 수출이 크게 늘어났지만 인플레이션이 올해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"고 밝혔다.
- 베트남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.0~6.5%로 잡고있다.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5.05%를 기록한 바 있다.
- 5월 수출과 수입은 각각 328억1000만달러, 338억1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5.8%, 29.9% 증가했으며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각각 8.9%, 9.5% 증가했다.
- 한편 영국 글로벌 금융컨설팅업체 옥스퍼드이코노믹스(Oxford Economics)는 "베트남의 최대 수입국인 미국이 당분간 높은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전반적인 대외 전망도 밝지 않다"며 "수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경제성장률은 올해 목표에 이르지 못할 수있다"고 전망했다.

관련기사 링크: <https://www.insidevina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7635>

■ 베트남, 권력서열 2위 새 국가주석에 또 랴름(To Lam) 대장 선출

- 베트남 신임 국가주석에 또 랴름(To Lam) 대장(전公安부 장관)이 선출됐다.
- 22일 국회 본회의는 랴름 대장의公安부 장관 해임안을 가결한 뒤 참석의원 473명중 472명의 찬성으로 2021~2026년 임기 국가주석으로 선출했다.
- 이날 오전 9시 랴름 신임 국가주석은 국회 연단에 올라 취임 선서를 하고 보반트엉(Vo Van Thuong) 전 국가주석의 잔여임기를 맡을 국가주석으로 공식 취임했다.

해외시장 및 경제동향(6월)

- 럽 국가주석 후보자는 베트남 공산당 최고등급 칭호인 인민무력영웅 훈장을 추서받은 혁명운동가 또 꾸옌(To Quyen, 1929~1996)의 아들로 1957년 북부 흥옌성(Hung Yen) 반장현(Van Giang)에서 출생했다. 럽 후보자는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일찍부터 중앙공안학교(현 인민안보원)를 졸업한 뒤 정치안보국 1부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정치안보국 1부 부부장, 안보총국 정치안보국 3부 부장,公安부 안보총국 부국장, 제1안보총국장 등을 지냈다.
- 뒤이어 2018년 8월公安부 차관이 된 럽 후보자는 2016년 4월부터公安부 장관으로 재임중이며 2019년 베트남 인민공안 역사상 네번째로 대장(2007년 소장 진급)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.
- 럽 후보자는公安부 장관 재임기간 역대 최대규모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기록된 RIKVIP 조직사건과 비엠티아(Viet A) 코로나19 진단키트 비리, FLC 그룹 주가조작, 떤황민그룹(Tan Hoang Minh) 불법채권 발행, 1000조동(400억달러) 규모 사이공은행(SCB) 불법 허위대출 적발 등 굵직한 사건을 직접 지휘하며 수사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.
- ◆또 럽 국가주석 후보자 주요약력 ▲10~13기 당중앙위원 ▲10~15대 국회의원 ▲12~13기 정치국 위원 ▲公安부 차관·장관 ▲반부패중앙운영위 부위원장(위원장 응웬 푸 쩡(Nguyen Phu Trong) 총서기장)

관련기사 링크: <https://www.insidevina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7556>